



■ 광주고법 제주 소방공무원 수당 파기 환송심

“중복 지급된 30억 도에 반환하라”

2009년 “월 360시간 근무해도 40여 시간만 수당” 소송 1·2심 원고 승소…도, 2013년 500여명에 140억대 지급 대법원, 2019년 “휴일근로 수당+시간외 지급은 문제”

제주 소방공무원 수백 명이 30억원 이 넘는 수당을 다시 뺏아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 등 3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가 원고(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이 가운데 중복(휴일근로수당·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된 수당은 원고들이 반환하라는 취지다.

A씨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별도로 월 최대 360시간을 근무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월 40여시간의 초과근무수당만 받았다며 지난 2009년 12월 2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제주지법·2011년)과 2

심(광주고법·2013년)은 “지침은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일 뿐 수당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1·2심 판결을 토대로 제주도는 A씨 등 36명에게 12억원을,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방공무원 509명에게도 130억원을 지난 2013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제주도가 휴일에 일한 소방공무원에게 휴일근무수당에 더해 시간외수당까지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소방본부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상고’가 없을 경우 기존에 수립해둔 ‘수당 환급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수 규모는 30억원대로, 이 가운데 A씨 등 36명은 2013년부터 이자가 붙어 기존 2억원에서, 4억원 이상으로 반환금이 붙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509명에 대해 이자를 부과할지 여부를 현재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서귀포경찰서장에 한도연 전북 청문관

경찰청 17일자 총경 인사

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장을 포함해 오는 17일자로 총경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13일 단행했다.

신임 서귀포경찰서장은 한도연(55·사진·간후 38기) 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발탁됐다. 한 신임 서장은 전북청 무주서장·정읍서장·전주덕진서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귀포경찰서장을 역임했던 최보현(51·사시 46회·경무관 승진 후보자)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이 맡



는다. 최 신임 과장은 제주청 수사과장, 서울청 마포서장 등을 거쳐 다시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청 112치안 종합상황실장은 이번에 총경으로 승진한 구슬환(49·간후 45기) 제주청 홍보계장이 낙점됐다. 구 신임 실장은 서귀포서 경비교통과장, 서부서 생안과장 등을 거쳐 총경으로 승진했다.

제주청 외사과장은 문영근(53·경대 8기)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이 선정됐다. 문 신임 과장은 울산청 동부서장·생활안전과장, 제주청 서부서장 등을 역임했다.

문 과장이 떠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 자리에는 조규형(47·경대 13기) 제주청 외사과장이 맡는다.

송은범기자

“상습폭행 전력·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아내 살해 40대 결심공판… 검찰 징역 25년 구형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모(45)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혐의는 살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자신에게 항의하는 부인과 말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인해 배우자를 살해했다. 이전에도 배우자를 수 차례 폭행했고,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씨의 변호인은 “검을 주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소리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이별 통보 연인 성착취

40대 중국인 징역 5년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알몸을 촬영·유포까지 한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주거지에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또 B씨의 옷을 벗긴 뒤 알몸을 강제로 촬영했고, 이를 빌미로 약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같은달 중국의 한 SNS에 B씨의 알몸 영상을 유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을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택배노동조합 차량 시위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택배 차량 10여 대를 동원해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이상국기자

제주 사흘 연속 한자릿 수 확진

13일 오후 5시 기준 5명 코로나 양성 판정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한자릿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유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에서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 수는 4863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11

일 5명, 12일 7명, 이날 5명 등 사흘 연속 한자릿 수를 보였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류하면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해외 입국자이다. 또 1명은 기존 집단감염인 ‘서귀포시 초등학교2’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선배에 흥기상해 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선배 B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 흥기를 구입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범기자

“모텔 가자”… 女택시기사 폭행 60대 실형

모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한 여성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탑승한 택시에서 여

성 기사를 향해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택시 기사를 여러차례 폭행해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쫓지 않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아울러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해충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앞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가식, 청정가식 수도매관 누출정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의료안내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756-2833